

천주의 성요한 호스피스 센터

광주 광역시 북구 임동 67

☎ 062-29-0041



천주의 성요한 병원에서는 천주의 성요한 정신인 "Hospitality"를 그 근본이념으로 하여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주의 성요한 호스피스 센터의 Service Program에는 입원실, 가정방문 호스피스, Day Center (주간 서비스 센터)가 있으며, 1980년부터 가정방문 활동을 시작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시행해 오다가 1992년 본격적인 가정방문 호스피스 서비스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었다.

1997년 5월 16일 10개의 침상을 갖춘 입원실과 10~15명의 손님(환자)들을 위한 Day Care Center (주간 서비스 센터)를 개원하여 손님(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고 총체적인 돌봄을 위해 책임소사, 내과 의사, 간호사, 원목자, 약사, 영양사, 자원봉사자 등 약 30여 명의 호스피스 팀이 함께 일하고 있다. 입원실

에는 가능한 한 가정과 같은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과 휴게실, 상담실, 욕실, 주방 가족을 위한 가족침실, 손님(환자)이나 가족 Nursing Staff 등, 누구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기도실 겸 명상실인 Quiet Room이 마련되어 있다.

Day Care Center (주간 서비스 센터)에는 손님(환자)들이 활동 치료를 위한 상담실, 작업요법실, 물리치료실, 샤워실, 주방, 미용실이 마련되어 원목실과 자원

봉사실이 겸비되어 있다.

손님(환자)들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월 1회 정기적인 Hospice Team Meeting을 하고 있으며, 월 2회의 직원교육과 사례연구 발표를 위한 회합이 있다. 또한 손님(환자)들의 영신적 지지를 위해 주 2회 정기적인 미사가 봉헌되고, 입원 가족지지 프로그램으로 주 1회 가족 모임을 갖는다. 사별가족을 위한 서비스로는 월 1회 정기적인 미사봉헌과 사별가족 모임을 제공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손님(환자)들만을 위해 따로 장례식장이 마련되어 있다.

지난 5월 16일에는 직원, 가족, 손님(환자) 모두 모여서 1주년 돌잔치를 하였으며 1년 동안 약 200여 명의 손님(환자)들이 성요한 호스피스에서 서비스를 받으셨고 그중 약 120여 명의 손님(환자)들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다.

성가복지병원 호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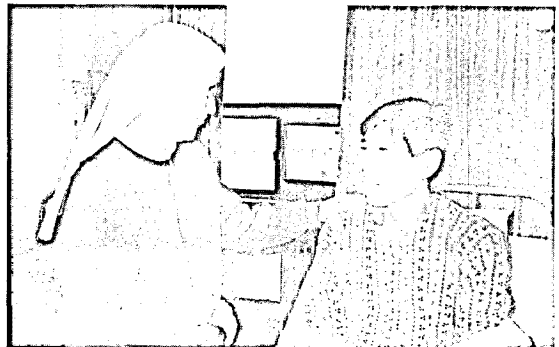
홍이사벨 수녀(성가복지병원장)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88-526

☎ 02-916-6111~5

성가복지병원은 1990년 7월 유료 종합병원이었던 성가병원을 무료 병원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국가 보조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이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불쌍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따뜻한 보금자리인 성가복지병원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환자 가족이 되어 하느님의 사랑으로 몸의 상처 뿐 아니라 영혼의 상처도 함께 어루만져 주고 있다. 1991년 11월에 시작한 호스피스과는 임종의 고통 중에 있는 암말기 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가지고 남은 생을 의미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신체적, 영적, 심리적인 치료와 간호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5병상인 호스피스 병동에는 호스피스 의사 1명, 호스피스 담당 수녀 1명, 간호사 4명, 봉사자 50명의 팀으로 환자의 통증 조절과 증상 완화 치료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사시다 본인 원의에 따라 대세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한다. 호스피스 봉사자는 한 조당 6명의 팀으로 구성되어 하루에 2시간씩 맡겨진 한 환자를 임종 때까지 돌보아 주며, 임종 후에도 환자의 가족이 되어 장례식 뿐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에게도 계속 연락하여 위로와 선교 활동을 하기도 한다. 호스피스과에서는 봉사자의 자질과 봉사자의 자세를 재인식하기 위해 매월 1회 봉사자 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조장모임, 조모임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다. 매년 1회 봉사자 전체피정을 통해 영적인 양식과 힘을 얻고, 해마다 12월에는 평가회를 가져 지난날

의 반성과 새로이 시작되는 날들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1991년부터 1998년 현재까지 호스피스 환자 현황을 보면 입원환자 600여 명이며, 한 환자의 재원 일수는 일주일에서 2~3개월이 가장 많은 편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입원하는 환자도 있다. 평균 연령은 40~50세가 많은 편이나 간혹 20대도 있다. 병명으로는 폐암, 직장암, 위암, 간암의 순서로 환자가 많으며 지금까지 안구기증자는 20명, 시신기증자는 50명이다. 죽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슬픈 일이다. 더구나 자신의 죽음을 지켜 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맞이하는 죽음은 더욱 비참하고 슬프다. 그러나 성가복지병원 호스피스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사랑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미움과 원망으로 헤어진 환자의 가족들을 찾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생을 마감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하늘 나라의 사다리가 되어 임종하는 이들의 아프고 외로운 마음을 곁에서 지켜 주고 기도로 보듬어 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가정 호스피스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 회관 4층

☎ 02-778-7080

설립 경위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채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많이 있다. 사회복지회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그리스도인 정신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응답하고자 가정 호스피스를 생각하게 되었다.

준비와 시작

• 1990년 2월에 사회사업가, 간호사, 상담심리 전문가, 미국 호스피스 봉사 경험자가 모여 준비위원회 모임을 갖게 되었다. 준비위원들은 약 1년 간을 연구기간으로 정하고, 자료수집, 지역사회 파악, 관계기관 견학, 세미나 등에 참석 하였다.

• 같은 해 5월에는 호스피스 관심사와 종사자 모임을 마련하였는데, 종교에 상관없이 서울, 춘천, 인천 등지에 있는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봉사자들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이 모임은 상호 정보교환과 연구를 위해 월1회 정기 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 모임이 모태가 되어 1992년 3월 28일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가 창립되었다.

• 우리 가정 호스피스에서는 1991년 3월부터 환자와 가족을 돌보게 되었다.

가정 호스피스 운영

• 가정 호스피스 팀원

우리의 형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때 그때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전담 의사가 없는 관계로 대개의 경우 환자의 주치의의 소견을 따르며 필요에 따라 호스피스 의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사회복지회 안에 가정 호스피스 사무실을 두고, 상근 간호사 2명과 사회 사업가가 실무를 보며,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외에 간

호 봉사자 5명과 일반 봉사자 50여 명이 속해 있는데 사무실 상근자의 중재로 본당,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목자 역할은 환자가 속한 종교 단체나 본당 사목자에게 의뢰하며, 병원 입원시에는 병원 원목실에 의뢰한다. 팀 모임은 전담 간호사와 봉사자, 상근 실무 조정자가 함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그외 팀웍을 위한 조정은 상근 간호, 실무 조정자가 중재하고 있다.

• 환자/가족 지지와 보살핌

전담 간호사와 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와 요청에 따라서는 수시로 방문하여 보살피고 있다. 한편 이들은 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사무실의 상근 실무 조정자에게 제공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지지와 보살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무실 상근자는 환자와 가족에게 전화 방문도 수시로 하며, 일반 누구에게든지 전화상담을 해주고, 사무실로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상담을 한다. 이는 주말 이외 낮 시간에는 언제나 가능하다. 우리 가정 호스피스에서는 일년에 약 100명 정도의 환자와 그 가족을 보살피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말기 암환자이다. 물론 사별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기타 활동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 2회 실시되는 호스피스 교육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강자들에게 호스피스의 올바른 철학과 방법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 이외도 홍보 매체를 통하여 호스피스 이용 안내를 한다. 호스피스 관심사와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따로 실시하여 보살핌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모현 호스피스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4번지

☎ 02-779-8245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원 분원으로서, 연계 기관은 강릉 갈바리 의원이며, 1987년에 답십리에 서부터 출발하여 1989년 미아리로 이사오면서 독립형 가정호스피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회 창립자 메리포터 수녀님의 정신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성모님의 마음으로 모든 임종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간 호하라는 사명감으로 내일이면 늦을 오늘 죽음에 임박한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의사 수녀 1인, 간호사 수녀 3인, 상담 수녀(사 별관리) 1인과 10여 년간 함께하는 이웃사촌 같은 20여 명의 자원 봉사자들과 일주일에 7일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1998년 6월말 현재 988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으며, 방문 횟수는 월 평균 82회, 사별관리상담은 14회, 병원 방문은 12회, 신환자 10명, 임종자 6명, 평균 3개월의 만남이 주로 많고, 기관과의 연계가 아직은 전문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서 지하철이나 버스로 1시간 30분의 거리가 되는 곳은 연락오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소개받는 경우이면 퇴원하기 전에 병원으로 방문하고, 유가족이나 봉사자, 교우들이나 의료진들로부터 소개받는 경우이면 퇴원하기 전에 병원으로 방문하고, 유가족이나 봉사자, 교우들이나 의료진들로부터 소개받는 경우이면 집으로 바로 방문해서 통증조절이 되면 상담과 죽음에 대한 준비, 가족 들과의 상담, 사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PATIENT REVIEW, 매월 셋

째 화요일에는 모현 호스피스 연구 모임 매월 넷 째 주일에는 사별가족 모임, 매월 첫째 금요일에 는 봉사자 모임, 매월 넷째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윌레미사가 있어서 유가족과 봉사자가 함께 참석 합니다. 매월 넷째 월요일에는 가톨릭 에이즈 모 임에 참석합니다.

부탁의 말씀

어려워진 경제 난국으로 병원의 혜택을 받을 수 도 없이 말기암의 통증에 시달리거나, 고통 중에 계신 가족을 알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 오. 비용은 무료입니다.

• 전화: 02-779-8245 모현 호스피스

메리 수녀, 네스 수녀, 권 로사 수녀, 최 프란체 스카 수녀, 김 안젤라 수녀

“내일이면 이미 늦을, 오늘 죽음에 임박한 이들 을 위해 기도합니다!”

메리포터 수녀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 병원 호스피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56
☎ 02-958-2049

성바오로병원 1986년에 선포된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실천의 일환으로 1988년에 호스피스과를 신설하여 올해로써 10들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전 병동 산재형으로 운영되어 오던 호스피스활동이 1997년 1월부터는 12병상의 아담한 '호스피스 병동'이 개설 됨에 따라 더욱 본격화 되어 병동 개설 1년이 조금 넘은 현재 130여 명의 말기 암환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경감은 물론 영적인 회복으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임종을 준비하여 선종하셨다.

환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총체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내과의사, 정신과의사, 마취과의사, 간호사, 성직자 및 수도자,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 등이 호스피스팀을 이루어 상호 유기적인 협동으로 환자의 통증관리에서 가족지지에 이르기까지 질적인 호스피스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병원 원내외에 본원 호스피스 병동을 알리는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분들로부터 많은 조언과 격려를 받고 있다.

성가 병원 호스피스과 후원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
☎ 032-340-2435

우리 호스피스 가족에게 무더운 날씨의 시원한 바람처럼 고마움을 더해주는 후원회 가족들의 정성어린 손길과 마음은, 긴 시간을 병상에서 견디어 내는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가족에게 더없이 힘들게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알게 하여, 그 사랑이 또다시 새로운 나눔의 고리에 연결되어 오실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듯합니다.

1996년 1월에 적은 회원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350명의 정규회원과 매월 특별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 많은 회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는데 희망을, 빛을 밝혀줍니다.

